

# ‘수십 년 은폐·오도’ 군 의문사 진실 밝혀졌다

군사망진상규명위 활동 보고서 ‘광주·전남 출신 피해사례’ 보니

### 흑산도 故 황영채 병장 ‘자살’→야간 근무 중 총기사고 ‘순직’ 12·12 쿠데타 저항 영암 정선엽 병장, 40년만에 ‘순직’→‘전사’ ‘과로사’ 故 최승균 소위,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한 ‘쇼크사’ ‘무단 이탈’ 이정희 이병 “술안주 잡아와” 지시에 저수지서 익사

흑산도 출신인 故 황영채 병장의 아들 승순씨는 평생을 아버지의 존재를 몰랐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자살했다는 당시 군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믿고 모든 집안 사람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승순씨는 지난 2018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위)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나서야 진실을 알게됐다.

군사망위는 ‘항병장이 야간 사격훈련장에서 가설병으로 근무 중 총기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됐

다’고 인정했다.

국방부는 황 병장에 대해 뒤늦게 순직결정을 했다.

황씨와 같이 군에서 사망했지만 수십 년 동안 사망원인이 은폐 축소된 사건들의 진실이 드러났다.

2018년 9월에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군사망위는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지난달 종합활동 보고서를 내놨다.

총 1787건의 진정사건 중 1134건(64%)을 진상 규명 결정했고, 203건(11%)을 기각했다. 나머지

88건은 진상규명불능, 151건은 각하, 211건은 종료 결정 및 취하했다.

결정문의 부록인 ‘나의 명복을 빌니다’의 제목의 피해사례집에는 유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있다.

1979년 12·12 쿠데타에 저항하다 숨진 영암 출신 정선엽 병장의 형과 친구들의 사연도 주변을 안타깝게 한다. 정 병장을 기억한 건 국가가 아닌 그와 함께 광주에서 흥사단 활동을 한 고교 동창들이었다. 그의 친구들이 군사망위에 진정을 넣어 40여 년만에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됐다.

1984년 화순군의 동북유격장에서 유격훈련 중 사망한 고 최승균 소위의 누나 정희씨도 37년 만에 동생이 순진 사실을 알게 됐다.

최 소위 사망 당시 군이 내린 결론은 ‘과로사’였다. 하지만 군사망위는 최 소위의 사망의 원인에 대해 ‘유격훈련 과정에서 교관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탈수와 그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 영양 결핍, 전신 폭행에 의한 손상 등에 의한 ‘쇼크사’ 또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했다.

최 소위는 유격훈련 첫날 광주 상무대에서 동북 유격장까지 행군과정에서 발목을 다쳐 선착순 구보에서 나오게 됐다.

최 소위는 교관으로부터 강가에서 일명 ‘물뺏따’를 당했고 이에 최소위는 순간 반항을 했다. 교관들은 목에 로프를 맨 채 그를 질질 끌고다녔고, 거꾸로 매달아 코에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최 소위는 며칠 후 숨졌지만 당시 부대에서는 과로 또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은폐했다.

정희씨는 “당시는 광주민주화운동을 겪은 직후였고 더구나 아버지가 한국전쟁 때 이북에서 내려왔던 터라 군에 이의제기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시효 만료 때문에 가해자들을 밝히고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군의문사도 40여 년 만에 진실이 드러났다.

1980년 5월 29일 전주시 비행장 활주로 옆 저수에서 사망한 이정희 이병의 사인은 헌병대 수사결과 ‘부대를 무단 이탈해 혼자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죽었다’였다.

하지만 군사망위의 조사 결과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부대 인근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설치하다 심장마비(호흡중추마비)를 일으켜 익사한 것’이었다.

광주 등에 투입된 계엄군이 35사단에도 주둔했는데 이 이병의 항공 대장이 계엄군 장교에게 잘 보이라고 ‘술안주거리를 마련하라’며 저수지에 들어가도록 시킨 것이다.

이 이병의 진실이 밝혀진 것은 이 이병의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의 원인을 알고 싶다며 진정서를 들고 이사를 찾아 사람을 찾아 다녔기 때문이다.

결국 이 이병과 같이 근무했던 방위병들을 찾아다니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자 불안을 느낀 당시 활동대장이 자진 출두해 사실을 털어놓는 것이다.

이 이병의 동생 금희씨는 “이제라도 형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게 돼 다행이다 싶다”면서 “좀더 서둘렀다면 온 가족이 형의 이름을 더 다정하게 불렀을 텐데”라고 아쉬워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시창 역사축제 손짓하네 5일 광주시 서구 벽진동 영산강 둔치에서 시민들이 만개한 역사길을 걷고 있다. 이곳에서는 6일부터 10일까지 제8회 광주 시창 역사축제가 열린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현장실습 중 사망 흥정운군 2주기 촛불문화제

### 19일 여수 소라면 등서

여수해양과학교 현장실습생 故(故) 흥정운군 사고 2주기를 맞아 추모 촛불문화제가 열린다.

‘故 흥정운 현장실습생 2주기 추모위원회’(위원회)는 오는 19일 오후 6시 여수 일대에서 흥정운군 2주기 추모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사고 이후 2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이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촛불문화제는 오전 11시까지 여수시 소라면 예다원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이어 오후 7시까지 여수시

웅천동 웅천천수공원과 사고현장에서 열린다.

문화제에는 유가족과 흥군의 친구들이 함께 할 예정이다.

촛불 문화제에서는 추모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관계자의 추모 춤 공연과 추모 노래공연이 이어진다. 흥군을 추모하는 시 낭송과 오카리나 공연도 열린다.

한편, 여수해양과학교 현장실습생 흥정운군은 요트업체 사장의 지시에 따라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은 채 홀로 요트 바다에서 파게비를 제거하는 잠수작업을 하던 중 숨졌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자립준비청년’ 3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 광주·전남 1117명 중 456명… ‘5년간 월 40만원 수당’ 개선해야

광주에서 아동보호시설을 벗어나 홀로살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 둘 중 한 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연숙(비례)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광주·전남지역 자립준비청년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를 넘겨 보호가 종료돼 홀로살기를 시작한 이들을 뜻한다.

광주는 올해 자립준비청년 563명이 홀로살기에 나섰으며 이 중 273명(48%)이 기초생활수급자다.

전국 평균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41%)을 웃도는 수치고, 부산(51%), 대전(49%)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전남은 554명 중 184명(33%)의 자립준비청년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수당’ 명목으로 5년에 걸쳐 월 40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으나, 경제적 열악함을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모자란 실정”이라며 “정부·지자체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등의 방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교통법규 위반 안 했는데 왜 과태료?

### 전남서 장비 오류로 70건 잘못 부과…피해금액 420만원

전남지역에서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과태료가 잘못 부과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부산 수영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교통단속 장비 오류로 잘못 부과

된 사례가 70건에 달했다. 피해 금액은 420여만 원이다.

지난해 기준 장비오류로 인해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는 지역별로 서울이 164건(187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남이 26건(148만원)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전북이

22건(139만원), 경남이 14건(8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황에서도 전남은 44건(269만원)으로 여전히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았다. 충북이 84건(480만원)으로 가장 많고 대전이 59건(238만원)으로 두번째다.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대수도 2019년 95건에서 지난해 183건으로 부쩍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5건이었다.

사유별로는 속도 정확도 문제, 위반차량 단속률, 차량번호 인식오류율 순으로 높았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외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배틀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